

[발표 3]

‘근거중심 사회복지실천’ 적용을 위한 성과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복지학회지를 중심으로 -

정상원¹⁾, 송아영²⁾(연세대 박사과정)

I. 서론

1990년대 초에 체계적이고, 재현가능하고, 오류가 없는 최신의 연구결과를 임상진료에 적용하고자 하는 근거중심의학(Evidence Based Medicine)의 출현은 정신의학, 간호학, 교육학 및 정책수립과 의사결정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근거중심실천(Evidence Based Practice)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근거중심실천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이 단순히 암기하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적 통찰력을 사용하기 보다는 각 사례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선택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그 선결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근거중심 사회복지를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제반여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근거중심적 접근에 요구되는 지식체계를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실천가 및 정책가들이 효과적인 개입전략을 세우는 데는 풍부한 효과성 연구와 지식체계가 필요하다. 앞의 발표 내용에서 이미 충분히 언급되었듯이 근거중심실천은 기존 효과성 연구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객관적인 개입의 증거를 획득하고 클라이언트의 상황과 환경에 적절한 개입 전략을 모색하는 기초가 된다.

이미 서구에서는 의학분야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Cochrane Collaboration(www.cochrane.org 참고)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영역에서도 Campbell Collaboration(www.campbellcollaboration.org 참고)을 마련하여 사회복지, 교육, 교정과 사법 영역 위주의 메타연구와 ‘체계적인 평론’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다양한 사회복지개입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근거중심실천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의 데이터베이스 수립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베이스의 자료의 기초가 되는 개입연구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복지학회지인 ‘한국사회복지학’을 중심으로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구동향을 살피고 데이터베이스에 사용가능한 연구의 동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사회복지학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대표적인 학회지이며 한 분야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의 분야를 총망라하고 있어 효과성연구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1)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

2)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

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복지학에서의 개입연구의 위치를 분석하여 사회복지계의 근거중심실천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제언을 하고자 하는 바이다.

II. 이론적 배경

사회복지실천이 관련성 있는 정확한 지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전문적 실천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핵심적 요소이다. 또한 공인된 절차를 거쳐 발간되는 연구논문은 전문적 지식을 축적하고 전수하는 데에 신뢰로운 근거 자료가 된다(Rosen et al. 1999). 최신의, 객관적인 근거(evidence)에 의거한 실천을 주장하는 근거중심 사회복지실천은 일반화될 수 있는 대표성, 측정가능성, 통제 가능한 인과적 관계, 과학적 회의(skepticism), 경험적 실증, 관찰방법의 신뢰성과 반복 가능한 재생성(replication)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료를 근거(evidence)로 할 때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Thyer, 2007).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사용자가 자료의 성격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에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Pieper(1989)의 연구 및 Rosen과 그의 동료들(1999)의 연구는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그들이 수행한 논문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기술적(descriptive), 탐색적(exploratory), 성과(outcome) 연구로 분류하되 연구방법과 자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재정의 하였다. 본 연구는 Rosen<표 1>과 같은 기준과 내용 및 적용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2000년 이후 한국사회복지학회지에 게재된 401편의 연구 논문을 분석하였다.

<표 1> 연구분류별 연구내용과 적용

분류	내용	적용
서술적 지식 (Descriptive Knowledge)	연구자가 도구가 되어 특정 대상, 문제, 개입 방법 등에 대하여 연구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 현상을 파악하는 것 보다는 심층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지식을 뜻한다.	적용예> 이혼한 클라이언트가 자녀와 함께 독립적인 삶을 꾸려나가는 과정에 대한 연구 적용예> 이혼한 클라이언트들의 자조집단 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 등
탐색적 지식 (Exploratory Knowledge)	통계방법을 적용하여 양적 자료를 분석하여 현상을 의미 있는 범주들로 분류하고 현상 또는 문제와 관련된 여러 변수들의 유형과 영향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적용예1> 클라이언트에게 우울증 척도를 적용하여 점수를 통하여 우울증 여부를 진단한다. 적용예2> 이혼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지식을 통하여 클라이언트의 우울증이 이혼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가설을 세운다.
성과적 지식 (Outcome Knowledge)	의도적인 개입에 의하여 기대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게 하는 근거 지식으로서 개입방법을 선택하고 개입 계획과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	적용예> 이혼으로 인한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에 효과적인 개입 방법과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한다.

Pieper(1989) 등의 학자들은 실험설계와 같은 연구는 다른 연구설계에 비하여 이론과 가설을 검증하는 데에 더욱 용이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근거중심 접근에 있어서도 실천에 적용하는 데에 용이한 지식들은 근거(evidence)의 효용에 따라 위계가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근거중심 접근법에서는 실험설계(experimental design)에 의한 성과연구(outcome study)를 주요 근거로 보고 성과연구 내에서도 위계적 분류를 하고 있다.

<표 2> 상세 연구분류 방법

1차 분류	2차 분류	3차 분류
조사연구 Research	서술적 지식 (Descriptive Knowledge)	양적 자료를 활용하는 사례연구 (case studies using quantified data)
		여러 사례를 사용하는 질적자료 분석연구 (large-scale analyses using qualitative data)
		질적 자료를 활용하는 사례연구 (case studies using qualitative data)
	탐색적 지식 (Exploratory Knowledge)	대표본을 사용하는 양적자료 분석연구 (large scale analysis using quantified.)
	성과적 지식 (Outcome Knowledge)	실험설계 (experimental design)
		메타연구 (meta analysis)
비조사연구 Non research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발간된 한국사회복지학회지의 게재 논문들을 위의 분류체계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사회복지학 연구에 있어 특히, 근거중심 사회복지실천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논문의 동향을 파악하는 일례로 삼고자 한다.

Ⅲ. 연구결과

다음은 한국사회복지학회 연구의 일반적 분석결과이다. 결과는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200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총 게재 편수는 401편이었으며 년도 별 평균 게재 편수는 50.1편, 각 호별 평균 게재 편수는 13.4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2000~2007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연구의 일반적 경향

내 용	편수
2000~2007년 총 게재 편수	401편
연도별 평균 게재 편수	50.1편
각 호별 평균 게재 편수	13.4편

우선 401편의 한국사회복지학회 게재 논문을 조사연구/비조사연구 분류 기준에 따라 빈도를 분석하였다. 조사연구는 사회복지조사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논문을 작성한 경우를 포함하며 비조사연구의 경우 이론고찰 및 리뷰 연구나 역사 연구 등을 포함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비조사연구의 경우는 일정한 연구방법의 틀을 따르지 않을 뿐 본 분석에서 다른 분류 기준은 논문의 고저를 논하는 경우가 아님을 밝힌다.

분석결과는 아래 <표 4>에 나타나 있다.

<표 4> 2000~2007년 한국사회복지학회 게재논문 조사/비조사 연구 구분

	조사연구(Research, %)	비조사연구(Non-research, %)
논문 수	314(78.3)	87(21.7)

분석결과 조사연구의 기준 안에 들어가는 논문은 전체 401개의 논문 중 31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78.3%에 해당하는 비중으로 많은 수의 논문이 일정한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조사연구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체 논문 중 87개의 논문으로 약 21.7%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분야의 비교정책연구나 임상분야의 탐색적 연구 혹은 이론 소개 등이 주로 다루어지는 주제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분석으로 조사연구 부분의 보다 자세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연구 부분은 크게 서술적 연구, 탐색적 연구, 성과 연구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Rosen et al.(1999)의 연구에서는 성과연구를 통제연구(control)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용어를 성과연구로 대체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성과연구라는 용어가 근거중심실천의 가능성 타진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다 폭넓은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그 장점이 있다.

분석 결과는 아래 <표 5>에 나타나 있다.

<표 5> 2000~2007년 한국사회복지학회 게재논문 서술적/탐색적/성과 연구 구분

	서술적 연구 (descriptive, %)	탐색적연구 (explanatory, %)	성과연구 (control, %)
논문 수	43(13.7)	238(75.8)	33(10.5)

분석결과 조사연구 전체 314편의 연구 중 43편의 연구가 서술적 분류 기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술적연구는 질적연구로 대표되며 통계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일정한 연구방법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서술형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것을 말한다. 분석 결과 대규모 표집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방법을 사용하여 결론을 도출한 explanatory에 해당하는 논문이 전체 238편(75.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게재 논문 401편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59.4%에 해당하는 것으로 절반 이상의 논문이 대규모 표집, 통계방법의 연구 과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가장 주된 분석 대상이 되는 성과연구의 비중을 살펴보았다. 성과연구란 일정한 개입의 효과 및 결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단순 표집이 아니라 실제 클라이

언트에 대한 개입이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분석 결과 전체 조사 연구 중 33편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5%의 비중이며 총 개제 논문 401편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8.2%의 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는 실제적인 응용학문으로서 대상에 대한 직접적 개입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주요 강령 중 하나인 지식의 전달과 보급에 있어서도 실천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개입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여 충분히 강령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연구가 대규모표집을 통한 통계연구를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입에 대한 성과연구는 매우 미진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한국사회복지학회지를 분석 대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타 임상관련 연구지를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다. 그러나 한국사회복지학회는 한국의 사회복지 연구동향을 균형 있게 대표하는 가장 주요 학회지임을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의 <표 6>는 성과연구의 구체적인 분석 내용이다.

<표 6> 성과연구 세부 분류

	사전사후 (통제집단있음)	사전사후 (통제집단없음)	메타분석	SSD	systematic review	무작위할당연구
논문 수	21(63.6)	10(30.3)	1(3.0)	1(3.0)	0	0

분석결과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성과연구는 통제집단이 있는 사전사후 효과검증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21편(63.6%)의 논문이 이에 해당하였다. 다음은 통제집단이 없는 단순 사전사후검증으로 10편의 논문이 이에 해당하였다. 이는 30.3%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메타분석의 경우 1편의 논문이 발견되었다. 또한 SSD(Single-Subject design)연구 역시 1편으로 각각 3.0%의 비중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기준에 포함되었던 systematic review의 경우 한 편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무작위할당 연구 역시 한 편도 발견되지 않았다.

사회복지의 근거중심실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증거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과연구에 있어 고급의 설계가 필수적이다. 한국의 성과연구는 대부분 사전사후연구에 머물러 있으며 통제집단이 있는 경우 대부분 편의적인 통제집단을 통해 결과를 비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을 무작위로 할당하여 개입을 통한 성과연구는 한 편도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다양한 성과연구의 효과성을 총망라하여 연구하는 메타분석이나 systematic review역시 그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systematic review의 경우 단 한편도 개제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본 연구진에서는 한국사회복지학회지 개제 성과연구 년도 별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 내용은 아래 <그림>에 나타나 있다. 72.77



그 결과 2000년도에는 5편, 2001년도에는 6편, 2002년도에는 5편, 2003년도에는 4편, 2004년도에는 5편, 2005년에는 2편, 2006년에는 2편, 2007년도에는 3편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복지학회지의 년 평균 게재 편수가 약 50편임을 감안하였을 때 성과연구 비중은 대부분 적게는 4%에서 1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2000년 이후에 한국사회복지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사회복지실천에 함의를 가지는 논문은 총 401편의 논문 중 182편으로 비중이 높은 반면, 근거중심 사회복지실천에 적용하는 데에 가장 유용성이 높은 실험연구는 32편으로 임상연구의 17.6%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나마 비중이 낮은 성과연구는 2003년 이후 더욱 그 편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근거중심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근거 자료는 특히 최신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시차적으로도 실험연구의 편수가 줄어드는 것은 근거중심 사회복지 실천을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연구경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근거중심사회복지실천을 위해서는 근거의 위계상 메타연구나 체계적 분석(systematic analysis) 연구가 가장 중요 근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8여년 동안 메타 연구가 단 1편 수행되었을 뿐이라는 점은 근거중심 실천을 사회복지분야에서 적용하는 데에 현저한 한계점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임상 연구 전문 학술지 및 각 대학원의 학위논문 등을 포함하는 방대한 조사연구가 후행된다면 한국사회복지영역의 근거중심실천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보다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한국사회복지학이 임상실천에 관련된 연구나 정책과 제도와 관련된 연구 및 행정관련 연구 등 다방면에 걸쳐 균형을 이루며 논문을 게재하고 있는 반면, 임상연구 중에서 성과연구의 편수의 비중이 특히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한국사회복지학의 선호 연구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연구자 중심적인 측면에서 조망해 보자면 먼저 성과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부담이 타 연구방법에 비하여 높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겠다. 적절한 연구대상과 통제집단을 선정하는 일, 연구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대한 부

답이 높고, 연구 대상에게 개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통제하는 일도 쉽지 않다. 또한 어렵게 연구한 내용이 효과적인 결과로 매듭지어져야 하는 연구관행 등도 연구자들이 성과연구를 기피하는 원인이 될 수 있겠다.

한편, 성숙한 성과연구가 축적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현재 게재된 성과연구 대부분이 연구자가 설계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의 유무를 제시하는 데에 제한되어 있으며 개입 프로그램간의 차이를 검증하는 연구 등 진일보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 소수의 연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도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무작위 할당 방법을 적용하는 등의 연구절차상의 엄격한 적용이 부족한 점도 성과 연구의 발전에 저해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성과연구는 실천가들에 의하여 실무에 적용되고 그 효과성이 증명되고 오류가 지적되면서 재검증되는 절차를 거치면서 실천현장과 상호 교류될 때,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취지와 목적이 실현되어갈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성과연구의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된다. 근거중심 사회복지실천은 산학간의 협동을 촉진시키며 사회복지 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는 클라이언트 뿐 아니라 정책 결정자, 실무자 및 일반 시민 모두에게 보다 책임감 있고 객관적인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총체이며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철학으로서 향후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하겠다.

참고문헌

- Rosen, A.(1999). Social work research and the quest for effective practice. *Social Work Research*. 23, 4-13.
- Thyer, B. A. (2007). Evidence-based social work practice: An overview. In B. A. Thyer & J. S. Wodarski (Eds.) *Social work in mental health: An evidence-based approach*. New York: John S. Wiley & Sons.
- Gibbs, L. E. (2003). *Evidence-based Practice for the Helping Professions*. Tomson Books/Cole.